

정당별 컬러점퍼 뽐낸 데프콘 스타들 투표장 룩도 재치만점



데프콘

역대 가장 치열한 선거로 꼽힌 제20대 대통령 선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스타들의 개성 넘치는 투표 인증샷이 연일 화제다. 스타들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 쓰며 포즈부터 의상 색깔까지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장면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배우 정보석,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속 등은 9일 투표소로 향하며 '올 블랙 패션'을 선택했다. 파랑(더불어민주당), 빨강(국민의힘), 노랑(정의당) 등 각 정당의 상징색이 배색된 의상을 입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배우 이지훈,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 등은 흑백 필터를 활용했다. 가수 데프콘은 아예 다양한 색깔이 섞인 의상을 입고 무표정한 모습의 사진을 찍어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 멤버들도 눈길을 모았다. 엄지를 추억을린 포즈나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제스처가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도 있어 주먹을 꼭 쥐고 카메라 앞에 섰다. 멤버들이 서로 손동작을 점검해주는 영상이 SNS에서 끊임없이 공유돼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일부 스타들은 억울한 농축도 받았다.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핑크색 마스크와 슬리퍼를, 베리굿 출신 조현은 파란색 바지와 모자를 착용하고 투표했다 "정치색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조현은 SNS를 통해 "억측은 나쁘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봄, 내달 9일 비연예인과 웨딩마치



봄

방송인 봄(이민호·40)이 4월 9일 비연예인 연인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10일 소속사 스카이에 앤엔에 따르면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비공개로 진행된다. 봄은 이날 오전 팬카페에 자필 편지를 올리며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니만큼 앞으로 행복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가정과 아내를 살뜰히 보살피고 안아줄 수 있는 좋은 남편의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YG 계약 만료된 탑 "빅뱅 복귀는 시간 걸릴듯"



탑

올해 초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탑(최승현·34)이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빅뱅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조만간 데뷔 16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활동계획으로 "장편 영화도 제작될 것"이라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사건에 대해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다.

SM·YG "산불 이재민에 써달라" 5억씩 전달

연예계 대표 매니지먼트사들이 경북 지역 산불 피해 돕기에 소매를 건여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와 YG엔터테인먼트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이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5억 원을 전달했다. JYP엔터테인먼트도 3억 원을 기부했다. 연예인들의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배우 전지현과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 가수 영탁, 임영웅 등이 1억 원씩을 기부했고 올해 1월 최태준과 결혼하고 출산을 앞둔 박신혜도 5000만 원을 쾌척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방탄소년단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10일 오후 2년여 만에 열린 국내 오프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로 1만5000여 명의 '아미'들과 직접 만났다. 사진은 지난 해 말 열린 LA미국 콘서트. 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864일만의 잠실 무대...함성 대신 '보랏빛' 물결

LA 공연과는 다른 곡 리스트 준비
개별 무대 즐기고 팀 무대에 집중
아미, 침묵으로 코로나 예방 동참

서울 잠실벌에 보랏빛 물결이 넘실대기까지 꼬박 2년 5개월이 걸렸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팬 '아미'가 다시 하나가 됐다. 면적 13만2200㎡(4만 평) 규모의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뜨거운 열정과 흥, 그리고 자신들의 상징인 보랏빛으로 가득 메웠다. 긴 기다림 끝에 보랏색 물결을 마주한 이들은 서로를 보며 감격해 했다.

2019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펼친 월드투어 공연 이후 864일 만인 10일 오후 'B

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SEOUL) 공연을 연 방탄소년단은 1만5000여 팬들과 2시간 30분 동안 반갑게 재회했다. 이어 12일과 13일까지 세차례 공연을 통해 모두 4만5000여 팬을 만났다.

●객석과 무대 거리 좁혀...공연에만 집중

방탄소년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내 팬들과 만나는 점에 2년여 동안 온라인으로 연 공연의 아쉬움을 오프라인에서 풀어내기 위해 오롯이 무대에만 집중했다. 그동안 온라인 무대를 통해 증강현실(AR) 등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한 이들은 이번에는

일곱 멤버들의 개별 무대를 즐기고 팀 무대와 팬들의 만남에 치중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국 LA 공연에서 선보인 48×17m 규모의 대형 LED 화면을 무대 중앙에 설치했다. 양 측면에도 소형 LED 화면을 추가 배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무대를 촬영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각 공연 노래별로 차별화한 장면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하좌우 전환할 수 있도록 이동식 LED 무대로 꾸몄다.

●'함성 대신 열정'으로

아미들은 이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멤버들의 동작을 생동감 있게 느끼며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멤버들은 "감염병 사태로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아

미의 마음속 열정을 느끼고 있다"며 더욱 흥겹게 춤쳤다. 콘서트 제목이자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인 '퍼미션 투 댄스'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났다.

세트리스트(곡 목록)도 아미 중심이었다. 그동안 공연에서는 앨범 수록곡을 중심으로 선보인 멤버들은 이번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곡 무대와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 팬들이 보고 싶어 할만한 퍼포먼스를 스스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7'(MAP OF THE SOUL: 7)의 타이틀곡 '온'(ON)을 시작으로 수록곡 '블랙 스완'(Black Swan) 등을 차례로 선보인 이들은 LA 공연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 위주로 공연을 펼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기돌' 윤아·수지·아이유 스크린 대결

윤아, '공조2' 현빈·유혜진과 재회
수지, '원더랜드' 박보검과 로맨스
아이유, '브로커'서 첫 스크린 주연

안정적인 연기력과 스타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 여자 연기돌' 윤아·수지·아이유가 올해 스크린에서 관객을 만난다. 스타급 감독 및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는 기대작과 흥행작의 속편 등으로 관객의 마음을 일찌감치 들뜨게 하고 있다.

2019년 942만 관객을 불러 모은 '엑스트라'로 여자 연기돌 최고 흥행 기록을 쓴 윤아는 스크린 데뷔작 '공조'의 후속작 '공조2:인터내셔널'(감독 이석훈·제작 JK필름)로 다시 한번 관객몰이에 나선다.

781만 관객으로 2017년 박스오피스 3위에 오른 '공조'에서 북한 형사 현빈에게 한눈에 반한 남한 형사 유혜진의 철없는 처

제 역을 맡아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준 데 이어 '공조2:인터내셔널'에서도 현빈·유혜진과 재회한다. 1편에서 비교적 적은 분량에도 신 스틸러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호평에 힘입어 더 커진 비중을 기대케 한다.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캐릭터로 첫눈에 반했던 현빈과는 물론 2편에 합류한 다니엘 헤니와도 어떤 관계를 맺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2년 '건축학개론'으로 '국민 첫사랑'이란 별칭을 얻은 수지는 영화 '원더랜드'(제작 영화사 봄, 기린제작사)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2019년 '백두산' 이후 3년 만이다. '백두산'에서 아이돌 출신 연기가자가 쉽게 선택하기 힘든 임신부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뒤 '원더랜드'를 통해 박보검과 독특한 로맨스 호흡을 보여줄 예정이다.

'원더랜드'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위로



윤아



수지



아이유

받는 이야기를 그리는 SF로맨스 영화다. '여고괴담:두 번째 이야기', '가족의 탄생', '만추' 등으로 호평 받은 김태용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는 작품이다. 수지는 박보검과 함께 공유·정유미·최우식, 그리고 김태용 감독의 부인 탕웨이 등 스타들과 힘을 모았다.

드라마 '호텔 델루나', '나의 아저씨' '프로듀사' 등으로 연기자로서도 위상을 굳힌 아이유는 '브로커'(제작 영화사 집)로 본격적인 스크린 공략에 나선다. 첫 스크린 주연작이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이 익명으로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심사위원상을,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강동원·배두나 등 톱스타급 배우들도 함께 출연한다. 올해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출품작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아이유가 여자 연기돌 최초로 칸 레드카펫을 밟을지 관심을 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털털한 매력' 김태리, 국민 첫사랑으로 급부상

'스물다섯 스물하나' 시청률 10%대
당찬 펜싱스타 나희도 역할 인기장

배우 김태리(32)가 새로운 '국민 첫사랑'으로 떠올랐다. 그가 주연한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최근 10%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돌파하며 안방극장 로맨스 주역 입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드라마는 각종 화제성 지표에서 정상에 오르며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김태리는 1998년을 배경삼은 드라마에서 IMF 외환위기 시대의 어려움을 딛고 펜싱스타가 된 나희도를 연기하고 있다. 펜

싱 라이벌인 고유림(보나)과 벌이는 치열한 경쟁. 방송사 스포츠기자인 백이진(남주혁)을 향한 첫사랑 감정 등을 다채롭게 펼친다. 덕분에 시청자들로부터 '청춘로맨스의 정석'이라는 호평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김태리와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8일 발표한 3월1주차(2월28일~3월6일) 드라마, 출연자 분야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넷플릭스 세계 많이 본 TV·프로그램(플릭스패트롤) 10위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인기다. 세계 최대 리뷰사이트 IMDb에서는 10일 현재까지 600여 이용자가 평점을 남겨 10점 만점 중 9를 기록 중

이다. 안방극장에 주연드라마를 내놓기는 2018년 tvN '미스터 션샤인' 이후 두 번째이지만, 시청률 성과는 베테랑 못지않다. 배우 이병헌과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군을 연기하며 당시 18.1% 시청률을 거머쥐었다.

최근에는 자신마저 '주인공 희도'와 꼭 닮았다"고 인정한 호탕하고 당찬 성격으로 시청자의 호감을 이끌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그의 털털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드러나는 각종 영상들이 '역주행'하며 조회수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다. 지난해 영화 '승리호'를 내놓으며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문명특급'이 470만, 남주혁 등 '스물다섯 스물하나' 출연진과 함께 나선 '타넨터뷰' 영상이 62만회를 각각 훌쩍 넘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김태리